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저희는 필리핀국립대학교 소속 어학원인 SLC어학원에서 지냈습니다. 총 5층의 규모의 건물이 있고 세탁실, 식당, 야외수영장, 숙소,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주변에 숲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아침에 원숭이들이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합니다). 물론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SLC에 가득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날 어학원 가자마자 토익형식의 테스트와 스피킹 테스트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로 나뉜 조로 그룹이 이루어집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교시동안 공부하는데 이 중 4교시는 그룹수업, 4교시는 1대1 수업입니다. 그룹수업 때는 토익스피킹, 토론, 뮤직비디오 및 광고 관련 수업을 듣고 1대1수업 때는 단어, 숙어, 토론, 말하고듣기 관련 수업을 듣습니다. 1대1수업 때는 레벨테스트 때 평가된 수준으로 책이 결정되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딱딱해보일 수 있어도 선생님들께서 교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공부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 연습을 실전적으로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 주제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색다르고 점점 갈수록 말을 구사하는 것이 늘어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룹수업 때도 조원들과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수업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함께 예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어가 잘 안되서 수업 전날에 미리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날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과 말하는 것이 편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특별히 숙제를 많이 안내주셔서 숙제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었습니다. 진짜 SLC선생님들 모두 열정적이시고 정도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저에게 계속 희망을 주시려고 해주셨고, 틀려도 좋으니 계속 얘기해보라는 권유를 계속 해주셔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매주 수요일 7,8교시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셋째주에는 필리핀UP부총장님 특강과 우송대 부총장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주말엑티비티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요트 투어였는데, 요트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물에 빠지고 싶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놀기도 하고 2층 지붕에서 다이빙하기도 했습니다. 저번 기수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미리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가라고 했지만, 예쁜 옷 입고 예쁜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요트에 가서서 입어도 큰 불편함은 없어보입니다. 요트가 바다에 한 시간 정도밖에 정박을 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빅에서 바다에는 빠질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신다면 꼭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마닐라 투어를 갔습니다. 마닐라투어는 원어민선생님 1명, 대학생 5명이 조를 이루어서 주어진 미션을 하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닐라가 소매치기도 많고 무덥고 공기도 안 좋기로 유명해서 가기 전부터 단단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수빅과는 다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귀중품 관리에 특히나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투어 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에 가는데, 정말 크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면도 있기 때문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mall of asia에 대해 알아가셔서 후회없는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에는 안바야코브를 갑니다. 세계 7대 리조트로 손꼽히는 만큼 모든 것이 예쁘고 힐링이 됩니다. 그 곳 수영장에는 오로지 수영복만 입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조끼나 겹옷, 모자는 절대 쓰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나, 거기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750페소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음료를 먹는다면 더 돈이 듭니다. 그런데 식당음식이 한국인에게 안 맞을수도 있어서 750페소가 아까울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바야코브 수영장 부근도 굉장히 예쁘지만 해변가도 정말 넓고 예쁘기 때문에 꼭 시간분배 잘하셔서 그곳에서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저희가 갔을 때는 수빅이 건기였기 때문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비가 딱 한번 왔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업받을 때 온거라 한달동안 날씨 때문에 문제 있었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무더운데, 평일에는 그 시간에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만 주말에 밖에 나갈 때는 정말 덥습니다. 하지만 저녁쯤에는 보통 정도로 덥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시기 전에 얇은 가디건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틀기는 하는데 꺼달라고 하면 꺼주시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옷까지 챙겨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수빅 내에서는 크게 안전에 위협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울릉가포 쪽으로 넘어갈 때는 건물들이 약간 옛날 건물들이라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수빅생활에 적응이 되면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다니지 말고 여럿이서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FB를 탈 때 택시처럼 얼마 내면 우리만 태워주겠다면서 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6명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타지 마시고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숙소	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3인1실이었고, 침대를 사용했으며 개인마다의 책상과 장롱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있었고, 세면대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 통금은 다음날이 쉬는 날이면 12시, 수업이 있는 날이면 10시였습니다. 술은 반입금지여서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드가 짐검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숲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방에 나타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생활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이나 바퀴벌레가 나오면 가드를 부르거나 직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바로 해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점호 때마다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면 바로 고쳐주시거나 참작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부터 각 방마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셨는데, 방 위치가 애매하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빨래는 월수금마다 세탁실에 바구니로 내면 그 다음날 건조도 다 되고 개인 상태로 세탁실 안에 놔두셔서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숙소 분위기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층을 쓰기 때문에 늘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들 간의 사이도 정말 좋았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한달이 되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보통 아침과 점심은 어학원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바깥에서 먹었습니다. 어학원 식당 아주머니께서 한식의 신이셔서 늘 맛있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밥과 빵이 번갈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죽을 준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의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었기 때문에 어학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지만, 어학원에서 먹었던 친구들은 모두 맛있다고 극찬했었습니다. 하버포인트 안이나 수빅베이 근처에 맛집이 정말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께 꼭 추천받아서 다양한 식당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어학원에서 시내로 나갈 때는 보통 FB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학원 입구가 거의 FB정류장처럼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FB오는 소리 들리면 손짓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되 근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FB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거의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안다니기 때문에 꼭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450,000	외식, 카페, 마사지 및 네일아트, 기념품, 교통비 등
합계	1,08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웬만한 것은 시내에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첫날에 안에서 신을 슬리퍼와 휴지, 1회용 삼푸 및 바디워시는 미리 구비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 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거기서 감기에 잘 걸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감기약을 미리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학원에 약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병원에도 못 가고 계속 못 나아서 남들 놀 때 못 노는 슬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건강하더라도 꼭 상비약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복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학원에 수영장이 있어서 함께 온 학생들과 수영할 일도 많고, 외부에 나갈 때도 수영복 입을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춥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얇은 가디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공부할 책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꼭 공부해야 할 책이 아니라면 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책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단어 검색하는 것보다 제가 아는 범위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전자사전도 딱히 필요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노트북도 보통 뮤직비디오랑 광고제작할 때 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트북으로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퀄리티가 있으나, 핸드폰 어플만으로도 충분히 다들 만들기 때문에 무리해서 노트북을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건, 혼자 신청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모두들 서먹서먹하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수박에 도착하자마자 다들 잘 어우러져서 지내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기념품을 한국에서 사갈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달동안 선생님들과 지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비해서 마지막날에 편지랑 함께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희 학과에 매 시즌마다 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온 친구들이 있어서 후기를 조금씩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 어학연수 마감 3일 전에 공지사항을 보았고 4학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연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영어에 대한 소중함은 절실히 느끼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영어란 거의 토익 중심이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기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영어회화, 그리고 제가 따로 신청했던 영어 관련 교양과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에 부딪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어학연수에 신청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신청했다는 점이 걱정됐지만 그런 고민도 잠시, 수박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라서 혼자 신청해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한달 간의 수박생활은 진짜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난 사람 한명 없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선생님들도 모두 열정적하시고 즐거운 분위기셨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알차 수 있었습니다. 총 8교시동안 수업듣는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적응이 되니까 매 교시교시마다 즐거

움을 느낄 수 있었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 오기 일주일 전에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했었는데, 선생님들과의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아픈 와중에도 열심히 수업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물론 공부하러 간 수빅이기는 했으나, 함께 간 학생들과 노는 것도 늘 즐거웠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 조절한다면 공부와 노는 것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원에서 한 방은 공부방으로 마련을 해주었는데 밤마다 그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저도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 동안 눈에 띄일 정도로 영어가 발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시작하는 굵은 시작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찍을 수 있었음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점에 만족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 얻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공인성적보다 실전적인 영어에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보니 영화로 공부해보라는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공부함과 더불어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깊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MMC페스티벌



테라스호텔 루프탑



마닐라 투어



시티투어



씨푸드아일랜드-하버포인트



어학원(with 룸메이트)